

신안,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 장관 표창

예방접종 우수 보건소 선정

신안군은 최근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사업 수행과 홍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하여 전국 우수 보건소 17개소를 선정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신안군이 선정됐다.

군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포함한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

으며, 주민들의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중요성을 알리는 데 꾸준히 힘써왔다.

특히,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률(87.5%) ▲어르신 폐렴구균(66.9%) ▲코로나19 예방접종률(59.6%) ▲12세 여아 HPV 예방접종률(91.6%) 등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높은 접종률을 달성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예방접종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정경옥 기자

해남 대표 쌀 ‘땅끝햇살’ 日 수출물량 완판

20톤 추가 수출 예정… 일본 소비자 호평 이어져

해남군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한 ‘땅끝햇살’ 물량 20t이 현지에서 전량 완판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군은 이달 10t이 또다시 선적된 데 이어 향후 10t을 추가로 수출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철저한 윤기가 흐르는 밥쌀을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는 결과로 분석된다.

‘땅끝햇살’은 2015년 브랜드 출원하고, 2016년 상표 등록을 완료한 해남군 대표 브랜드 쌀이다. 국산 육성 품종 ‘재창무’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 쌀이다. 밥맛이 우수하고 친환경으로 재배돼 국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다.

해남군은 일본 수출 성과를 계기로 현지 유통업체와 협상 폭도 넓혀 수출 물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품종 개발과 보급을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본 수출은 해남쌀의 품질과 상품성을 국제 시장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킨 계기”라며 “농가와 협력해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수출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진도,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잇따라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가 최근 군민과 단체로부터 장학금 약 7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진도 3·4월의 나눔 전도시 ▲청진회(청년진도모임) 10만 원 ▲고군면 허광무 100만 원 ▲제일타카 대표 김희숙 500만 원 ▲국제라이온스 진도여성클럽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들은 “작은 나눔이지만 우리 지

역 학생들이 꿈을 향해 무한히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에 동참하게 됐다. 미래인재들의 꿈을 응원하는 나눔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진회는 지난해 12월 진도와 환경을 주제로 개최된 ‘2024년 업사이클링&정크아트 전시회’의 판매 수익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장학회에 기탁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머물고 살고 싶은 영암’ 생활인구 50만 달성 나서

군, 생활인구 유치 보고회 개최… 방문·체류·정주 선순환구조 정착키로

영암군이 ‘가보고 싶은 영암’ ‘머물고 싶은 영암’ ‘살고 싶은 영암’ 3대 전략으로 생활인구 50만명 목표 달성에 나선다.

교통·통신 발달 등으로 변화된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암군 생활인구는 처음 산정된 지난해 1월 21만6,911명을 기록했고, 같은 해 3분기인 7월 26만7,564명, 8월 30만5,554명, 9월 30만8,555명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은 연초 21만명 수준이었던 생활인구가 왕인문화축제 개최, 기찬랜드 개장 등 다양한 관광 축제·행사를 거치며 30만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영암군이 군청에서 개최한 ‘생활인구 유치 시행계획 보고회’는, 지난달 수립한 ‘생활인구 종합계획’



을 바탕으로 수립된 22개 부서 93개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

영암군은 이 사업들을 추진해 방문-체류-정주로 이어지는 생활인구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첫째 전략, 가보고 싶은 영암을 위한 실천계획으로는 △오직 영암에서만 즐긴다_관광·축제 △전통과 현대의 조화_문화·예술 △쉽표가 있는 삶_여가 △대의교통로 만드는 더

큰 영암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영암 여행 원플러스원’ ‘대동공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남도음식거리 조성’ ‘디지털 영암군민 확보’ 등 사업이 진행된다.

둘째 전략, 머물고 싶은 영암의 실천계획은 ▲농촌에서 찾은 제2의 인생_귀농·귀촌 ▲취업 기회 확대_일자리가 추진된다.

영암군은 ‘농촌 체류 쉼터 활성화’ ‘웨이크이션센터 조성’ ‘영암형 취직

강진, 사회적경제기업·예비마을기업 공모 연속 선정

3개 기업 선정, 자립기반 확충…7900만원 확보

강진군은 최근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전남형예비마을기업 공모 사업에 관내 3개 기업이 선정돼 총 7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은 도내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춰 자립토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 장류 사업화를 위한 기획, 홍보, 제품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와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 지역특화사업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여행 체험프로그램과 로컬상품 판매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 모집 공고 이후 2월 현장 실사, 3월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4월부터 약정 체결과 보조금 교부 절차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립 기반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경선 기자

무안,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본격 추진

설계 공모 시작…무안종합스포츠파크 내 (구)청소년수련관 새 단장

무안군은 23일부터 무안종합스포츠파크 내 (구)청소년수련관 건물 새 단장을 통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1억 원(국비 30억 원 포함)을 투입해, 연면적 2,663㎡ 규모의 시니어친화형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새 단장하여 효율

적인 공간 재활용과 시설 현대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1일 추첨을 통해 설계 공모 심사위원 모집을 완료했으며, 참가 등록, 현장 설명회, 작품심사 등을 거쳐 6월 9일까지 설계 용역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설계 공모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용역사의 경험과 역량 등을 심사하고 상시 소통하여 설계를 진행

하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향후 조성될 국민체육센터는 스포츠파크 내 기존 시설과 연계해 이용이 편리하도록 설계될 예정이며, 탁구장, 스크린파크 골프장 등 시니어 맞춤형 여가 공간을 확충해 주민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김상문 기자

사회 책임제 운영’ 등의 사업으로 뒷받침에 나선다.

셋째 전략, 살고 싶은 영암을 목표로 ▲평화로운 삶_주거 ▲지방 소멸 대비_인구·교육 ▲다양성 존중_외국인 정주의 실천계획을 세웠다.

‘지역활력다온 조성’ ‘미래형 농촌 공간 조성’ ‘영암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외국인주민 특화거리 조성’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공기관 직원 정책연수 코스인 ‘영암 혁신로드 개발’, 대학생 유치 체험형 콘텐츠 ‘리얼캠퍼스 in 영암’, 청년 체류·탐방 미션 투어 ‘영암인사이드’ 등 12개 신규 시책도 보고됐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을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생활인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기별·중장기별 생활인구 확대 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생활인구 50만 확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영암에서 어울리며 즐기게 만들자”고 강조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완도, 농·어업인 9992명에 공익수당 59억원 조기 지급

완도군은 23일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1차 지급 대상자 9992명을 확정하고 1인당 60만원 총 59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지난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농어업인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공익수당 59억원은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농협·수협·축협·광주은행·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수령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공익수당 수령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금융기관에서 수령하면 된다.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지역 내 마트, 음식점, 주유소, 병의원, 약국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해 영농 준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땅끝
햇살
남김

대한민국의 시작

해남 청정 해역에서 키운 신선한 김, 땅끝 햇살남김을 만나보세요

땅끝 햇살남김은 해남군을 대표하는 김브랜드입니다.